

## 2. 주거양식의 변화

### 1) 선사시대

이 지역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일찍부터 선사문화가 형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여러 자료들이 발굴되므로 그 시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라 할 수 있다. 순천 북쪽 구릉상, 송광면 신평리 금평마을, 덕산리 죽산마을, 우산리 곡천마을 등에서 후기구석기에서 중기구석기에 해당하는 유적들이 발굴되고 있다.

1965년 미국인 모어(A. More)가 순천 북쪽 구릉상에서 타제석기를 발굴하여 학계에 보고한 바 있다. 또한 1987년 송실대 박물관에 의해서 송광면 신평리, 덕산리 죽산마을에서 이암제 92점, 석영제 114점 등 206점의 타제석기를 발굴보고함으로써 구석기 말기인 1만 5,000년에서 1만 3,000년 전에 이 지역에 선사문화가 형성되었음을 증명했다. 이러한 유적만으로 이미 구석기시대에 사람들이 원시주거를 축조했다고 보여지나 주거지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신석기유적도 과거에는 신안·완도·해남군 등지에서만 발견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승주군 대곡·대치리를 비롯하여 광양·여천군에서도 발굴되고 있어서 이 지역의 신석기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사람들은 해안이나 하안, 호안에 살면서 수렵과 어로생활을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발굴되는 신석기의 주거인 수혈(竪穴)주거가 이 지역에서도 축조되었을 것이다. 수혈은 지표면 아래를 약 0.5~1.2m 깊이로 파고 중앙에 노지(爐地)를 둔 5~6m 정도 직경의 부정원형 가장자리에, 기둥을 세우고 위에 나뭇가지와 풀로 엮어 진흙을 바른 원추형의 주거 형태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많은 수와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이 청동기시대의 지식묘와 주거지이다. 지식묘의 대부분이 순천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700여 기가 확인될 정도이다. 특히 1987년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송광면 대곡리와 도룡지역의 주거지 유적은 청동기에서 원삼국시대에 걸친 대규모 집단취락지를 형성하고 있다. 청동기에 속한 유구로는 수혈주거지 72기, 소형유구(저장공) 50기, 석기제작소 1기 등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평면은 원형이 23기, 방형이 47기, 기둥구멍만 있는 것이 2기였다.

특히 마한시대의 것으로 추측되는 원형 수혈주거지는 전남 등 서남 해안지역에서 보이는 것들과 같은 형식이다. 이 유적의 연대는 무문토기 전기에서 말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대단위 취락지로서 기원후 1세기에 걸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주거지의 형태와 생활상을 추론해볼 수 있는 귀중한 사료라 하겠다. 특히 이 지역의 청동기문화 중 원형 수혈주거지는 서남 해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나, 지식묘에서 발굴되는 석검 등의 부장품은 경남 남해안과 통하고 있어서 양 지역의 문화간에 깊은 관계가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그간 한반도에서 발굴된 주거지를 보면 나지막한 구릉 경사면에서 적게는 수호 많게는 100호 정도 되는 큰 취락을 형성하면서 농경, 어로, 목축 등으로 생활하였다. 이들의 수혈주거지는 대개 방형이나 장방형으로 한 면이 4~5m, 혹은 4×7m 정도로서 깊이는 50~100cm 정도이며, 노지는 평면 중앙보다는 안쪽에 치우쳐 있다. 평면은 원형·타원형·장방형으로 되어 있어서 농경생활로 별도의 저장장소가 요구됨에 따른 공간의 기능적 분화현상이 두드러진다. 기둥도 경사진 구멍이 없고 수직 구멍들로서 원시적인 가구식 구조를 사용하며, 초석이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순천지역에서 발굴된 주거지는 당시로서 상당히 큰 취락을 형성하였을 뿐 아니라 평면도 발전된 양상을 보이며, 별도의 저장소나 기구제작소 등으로 공간의 기능적 분화가 두드러진다. 이것을 보면 이 지역에서 청동기시대 및 원삼국시대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주거 문화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